

남원 '귀농·귀촌 1번지' 각광

최근 3년 연평균 1000여명 유입
30~40대 청년 인구 39% 차지
귀향인·각종 지원책 등 전입 유도
활력타운·등지마을 조성 등 추진



남원시로의 귀농·귀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인들이 시설원에 체험교육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에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원시가 발표한 '귀농·귀촌인 유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남원시로의 귀농·귀촌인은 2021년 1095명(856가구), 2022년 1016명(765가구), 2023년 1250명(833가구)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30~40대 청년층 귀농·귀촌 유입이 39%를 차지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례의 자연환경 등을 갖춘 지리적 여건과 주택구입·창업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지리산권 4개 면(운봉·인월·아영·산내)에는 전체 인구수 비율의 38%가 귀농·귀촌인으로 유입될 만큼 영농조건 및 자연환경 여건이 남원 정착 희망자들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남원시는 고령화율이 31.4%로 매년 사망자 수가 1000여명이 넘어서는 등 자연 감소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각화 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귀농·귀촌인 뿐 아니라 지원 대상을 귀향인까지 포함하고 이사비(최대 120만원)와 주택수리비(최대 800만원), 주택 및 시설 설계비(최대 2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자녀정착금은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 청년·가족 단위의 전입을 적극 유도했다.

남원시는 청년농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산면 일원에는 ECO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가 들어서고 청년농촌보급자리사업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에도 선정됐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함께 청년 임대주택도 원활히 공급 중이다. 지리산 지역활력타운 조

성사업은 정주인구 증대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매입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농촌 유학시설, 청년 세어하우스 지원과 귀농·귀촌 등지마을 조성 기반의 귀농·귀촌인 정주여건 개선 노력도 매력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지방 소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귀향인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서 출산·보육·교육, 창업, 주거, 정착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발달장애아에 재활바우처 추가 지원

언어·심리 재활 등...9만원 상당

정읍시가 시비를 활용, 7세 이하의 장애(예견)아동에게 월 최대 9만원 상당의 확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들의 정신적·감각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시는 8600만원의 예산을 자체 편성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기존 25만원에서 9만원을 더한 총 34만원의 바우처를 제공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바우처사업과 동일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7세 이하 장애아동이며 장애미등록인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는 전문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인 장애아동 보호자는 오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지원 기본 6회 서비스를 다 받을 경우 추가 2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효과적인 재활 및 양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여신의 과일 '패션푸르트' 본격 수확

남원 8개 농가 0.84ha 재배

남원에서 '여신의 과일'이라 불리는 아열대 과수 '패션푸르트'가 수확 중이다.

남원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4년 아열대 과수인 패션푸르트가 재배작목으로 도입된 가운데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확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아열대·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패션푸르트는 고소득 작목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 '백향과'로도 불리는 다년생 덩굴성 과수 패션푸르트는 비타민C가 석류보다 7배나 많고 칼륨과 니아신은 물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 성분까지 함유량이 높아 '여신의 과일'로 불린다.

식이섬유도까지도 풍부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변비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노화방지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패션푸르트 도입 이후 올해는 노력절감과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자 수분수정에 '화분매개벌'을 활용한 기술보급과 병해충의 물리·화학적 종합 방제 기술을 관내 0.84ha에서 재배 중인 8농가에 보



다 자라 수확을 앞둔 패션푸르트(백향과).

급해 패션푸르트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패션푸르트의 기능성 확보를 위한 재배실증을 진행 중이며 전북농업기술원과 화분매개벌에 대한 지역 적응성 및 기술정립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육단계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재배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특산품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쌍화차 주원료...현장조사 완료
농업 경쟁력·관광 활성화 제고

정읍시가 전통 쌍화차의 주원료인 '지황'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지황'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 중 현장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자문위원과 지황 재배농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웅동면 전통생활문화관과 구민당에서 진행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1992년에 지황 주산단지 지정됐던 시는 2015년에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했다.

2022년부터는 '정읍지황 농촌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읍지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가 쌍화차의 주원료인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황 주산지인 웅동면의 전통생활문화관에서 이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읍시 제공>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지황을 포함한 8종의 재래종이 재배되는 전시포뿐만 아니라 속지황 전통 가공방식과 경옥고 전통 중량방식도 선보였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유산의 가치 보존뿐만 아

니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NH농협 군지부, 쌀소비 증진 협약

고창군이 고창쌀 소비를 통한 고창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NH농협 고창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비 진작 활동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심택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이미정 NH농협 고창군지부장, 김갑선 해리농협조합장, 박윤구 대성농협조합장, 김기욱 선운산농협조합장, 오금열 고창농협 상임이사, 김익중 흥덕농협 상임이사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창군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식'에 이어 저소득층 이웃돕기 쌀 기탁식, 쌀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고창군과 NH농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군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협력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전폭적으로 생산된 쌀 가공 제품을 적극 사용

▲NH농협 고창군지부는 판매처와의 연결·배송편의 등 구입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 ▲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적극 전개 등 쌀소비 증대를 위해 각 부문에서 상호협력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정 고창군지부장은 "계속해서 임직원 동참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고, 앞으로 유관기관 및 학교 등교도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쌀 소비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